

#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THE GOLDEN AGE"의 영화의상 비교분석

-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1세를 중심으로 -

안 미 화\* · 장 애 란<sup>+</sup>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stumes in the film "The Sword With No Name" and "Elizabeth: The Golden Age"

- Focusing on Empress Myeong-seong and Queen Elizabeth I -

Mi-Hwa An\* · Ae-Ran Jang<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1. 7. 14, 심사(수정)일: 2011. 10. 16, 게재확정일: 2011. 8. 24)

### ABSTRACT

The movie costumes, artistic and figurative, serve to maximize the dramatic conveying effect of the movie's theme, actor's character, and the image of a dramatic situation expressed through clothing. It is considered that research would be meaningful if it studied on how the movie costumes are implied with symbols in order to present a dramatic ima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ompared, analyzed, and interpreted the historical plays produced on historical backgrounds, "The Sword With No Name" and 'Elizabeth - Golden Age'. In other words, five dramatic situations were extracte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stumes of Empress Myeongseong to the costumes of Queen Elizabeth. The costumes presented according to the storyline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two characters with these five as the basis are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implied symbolic meaning could be interpreted and analogized based on the result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symbolic meaning, along with the expression of the dramatic atmosphere, needs to be implied in the design of the movie costumes.

Key words: empress Myeongseong(명성황후), movie costumes(영화의상),  
queen Elizabeth I (엘리자베스 여왕 1세)

## I. 서론

현대인들이 경제적 여유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대중예술매체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드라마와 같은 공연문화가 현대인의 문화생활에 많은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특히 영화는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예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동시에 발전한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산업이자 대중예술의 대표적인 장르라 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다양한 공연문화를 직접 체험한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무대의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의상은 영화 속 등장인물의 위치나 성격을 나타내주는 이미지 연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서 줄거리의 전개나 반전<sup>2)</sup> 등의 영화의 극적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의상을 의미하므로, 배우의 캐릭터는 물론 배우의 동작과 그 심리적인 내면의 연기가 모두 함축된 이미지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로써 대부분 영화의상은 영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게 되고, 전개될 스토리 상황을 암시<sup>3)</sup>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표현 효과를 매우 중요시한 영화에서의 의상은 미술, 음향 등의 전달매체와 더불어 관객들에게 영화주제를 쉽게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시각적인 전달력이 강한 효과적인 표현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에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물론 상황적인 심리묘사 및 상징적인 암시가 표현된다는 것은 극의 전개는 물론 배우의 극중 역할에 부합되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데 편승한 의상<sup>4)</sup>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극중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영화의상을 통해 영화의 스토리는 물론 극적인 분위기를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표현방법과 영화의상의 제작자에게도 스토리 전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표현효과를 제언해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획된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THE GOLDEN AGE’의 영화를 선택하여 두 여주인공의 의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비록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시대적 상황과 동·서양이란 지역적 차이,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와 왕비로 정치에 참여한 명성황후라는 신분의 차이라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지만, 두 여주인공의 의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역사적 고찰을 통해 규명된 실존인물의 성향을 바탕으로 구성된 두 영화 여주인공의 극 중 캐릭터의 유사함 즉,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반대 세력에 맞서는 강인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등을 발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발체한 공통적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극적 상황을 다섯 가지 이미지로 유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두 영화의상 감독은 의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등에서 이미 발표된 의상들과의 차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증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1세에 관해 역사적으로 규명된 실존인물의 성향을 재조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여주인공의 극 중에서 어떤 캐릭터로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2차적으로는 발체한 공통적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유추된 다섯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영화의 스토리 전개상 주인공의 극적인 상황에 표현된 의상들을 선별하여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즉,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의 의상 총 17벌 중 5벌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하고, ‘ELIZABETH-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 총 24벌 중 5벌을 선별하여 분석·해석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극적인 상황에서의 이미지들이 의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와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내포시킬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표현연출을 위한 예술적 표현기법 등을 모색하여 영화산업에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시대극 영화의상의 개념

영화란 대중문화의 한 장르이고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산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재현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영화는 무엇보다도 시각에 호소하는 매체<sup>5)</sup>라 할 수 있으므로, 영화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민감한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sup>6)</sup> 다시 말해서 시각적 효과물이라 할 수 있는 영화의 상은 배우라는 극중 인물을 제 2의 인물로 변신시키는 역할<sup>7)</sup>을 하기 때문에, 극중 인물의 내면, 상황설정, 캐릭터 이미지 등이 표현된 의상을 통해 극적 반전은 물론 확연히 다른 이미지 연출도 가능하므로, 시각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 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대극 영화는 대부분 장엄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로, 화려한 스펙터클로 구성된 사극<sup>8)</sup>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서 제재를 빌려온 희극 또는 연극'으로, 과거의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설화 전설, 고전 소설 등 역사적 허구들을 극화시킨 영상물을 사극이라고 일컫는다.<sup>9)</sup> 그 외에도 역사극(歷史劇), 시대극(時代劇) 등 여러 단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대극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시대극은 당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그 당시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소품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기획한다. 예를 들어, 시대극에는 배우의 외적 표현인 의상, 분장, 장신구 등과 내면의 심리묘사를 위한 행동, 말투, 표정 등으로 역사인물을 만들어내며, 역사적 배경과 특정사건에 대한 기술도 포함되어야 한다.<sup>10)</sup>

그러므로 시대극에는 웅장한 세트틀 비롯하여 의상, 테크닉 컬러, 각본, 음악 선정과 촬영 등 모두가 기술적으로 완벽함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의상은 극중 인물이 처해있는 시대와 지역을 정확하게 고증, 재현되어 영화의 완성 또는 장면의 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객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공간 배경,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 등을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또한 배우의 성격묘사나 상징성<sup>11)</sup> 등도 함께 함축되어야 한다. 물론 시대극을 소재로 한 영화라도 영화 특성상의 현실과 가상의 설정이 공존할 경우, 설정 공간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픽션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의상은 정확한 고증에 의한 표현도 중요하지만, 스토리 전개상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다면 고증을 바탕으로 재해석 창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시대극 영화의상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대적 상황과 내용, 공간, 그리고 배우의 성격을 관객에게 알리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다.<sup>12)</sup> 즉,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속 픽션에 적합한 영화 의상으로 재해석하여 극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시켜야 한다.

### 2. 시대극 영화 줄거리

#### 1) '불꽃처럼 나비처럼'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은 천주교와 신문물을 앞세워 동아시아로의 식민지 정복이 확대된 시기이다. 조선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버지 대원군은 강한 쇄국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갔으나, 온 나라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으로 개혁과 보수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대원군은 왕권강화를 위해 왕후 간택을 서두르게 된다.<sup>13)</sup> 훗날 명성황후가 된 민자영(수애 역)은 황후 간택으로 입궁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다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곳으로 가던 중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자객으로 살아가던 무명(조승우 역)이다. 그는 피비린내에 찌든 자신과 너무나 다른 민자영을 만나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며칠 후 고종과의 혼례로 왕후가 될 예정이다. 무명은 왕 이외의 그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민자영을 죽음까지

지켜주겠다는 다짐으로 입궁 시험에 통과해 그녀의 호위무사가 되어 주변을 맴돈다. 한편, 차가운 궁궐 생활과 시아버지와외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민자영은 무명의 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외압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려는 명성황후의 외교가 충돌하면서 그녀를 향한 무명의 사랑 또한 광풍의 역사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sup>14)</sup> 일본은 명성황후와의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그녀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무명은 마지막까지 그 칼날 앞에 명성황후를 지키려 하지만 많은 일본의 칼과 총 앞에서 명성황후를 지켜내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무명은 명성황후 앞에서 끝까지 그녀를 지키려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홀로 일본 세력 앞에 마주한 명성황후는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지닌 채 그들의 칼날에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

## 2) 'ELIZABETH-THE GOLDEN AGE'

신교도와 구교도의 대립으로 대륙 간의 전쟁이 한창인 16세기 말의 영국은 신교도인 여왕 엘리자베스 1세(케이트 블란쳇 역)가 통치하고 있다. 구교도가 주권을 잡은 스페인은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메리 스텐어트(사만다 모튼 역)를 이용해 영국을 점령하려고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암살음모를 계획한다.<sup>15)</sup> 종교 차이와 여왕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향한 정치 외교적인 대립이 국·내외에 초래된 가운데 국가 간의 동맹을 목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구혼자들이 줄을 잇지만 여왕은 외교적인 목적으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지금까지 보아온 남자들과는 달리 자신 앞에서 당당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자유로운 탐험가 윌터 라일리(클라이브 오웬 역) 경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의 위치 때문에 애써 마음을 숨기지만 라일리 경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여자로서의 삶과 여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고,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결국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를 친구로 만 인정하기로 한다. 이때 메리 스텐어트의 엘리자베스 여왕1세를

향한 암살 음모가 발각되어 반역자로 메리 스텐어트를 사형하게 되고, 스페인은 이를 계기로 영국과의 거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 한 여자로서의 인생에 사랑이라는 축복 대신 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짚어진 그녀는 운명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여왕의 자리를 수용하고 짐을 손에 쥐어 스페인 무적함대에 맞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하여<sup>16)</sup> 큰 승리를 이루게 됨으로써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여왕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 3. 영화상의 여 주인공 캐릭터 분석

### 1) 명성황후 민자영 캐릭터 분석

역사적 사건에 픽션을 가미한 ‘불꽃처럼 나비처럼’에서 명성황후 ‘민자영’의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원군의 계획으로 황후가 되어 궁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사고로 인해 서양의 많은 문물들을 경험하기를 원할 정도로 서양 문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의 외교를 추진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둘째, 명성황후는 입궁한 후 비록 고종으로부터 여자임을 외면을 당하였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녀를 소중히 여긴 호위무사 무명 앞에서는 가려진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명성황후는 무명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알면서도 그를 거부하고 고종의 아내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아니라 한나라를 이끌어 가는 국모로서의 길을 선택한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셋째, 대원군과의 정치적 대립에 의한 음모로 어머니를 잃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된 양 격한 슬픔에 빠진 딸로서의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넷째,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대원군과의 견해는 정치적 대립양상으로 묘사되었다. 즉,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고종의 우유부단함과 정치 외교적인 일본 개입 등으로 두 세력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하였지만, 결국 정권을 장악하는 등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명성황후의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일본의 암살계획으로 인해 죽음과 마주한 명성황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당당하게 운명을 받아들인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의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2) 엘리자베스 여왕1세 캐릭터 분석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에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여성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남성 대신들 앞에서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둘째,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조연자로서 월터 라일리르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에 여왕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입장과 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국왕으로서의 입장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국왕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셋째, 스페인과의 정치적 종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메리 스튜어트의 엘리자베스 여왕1세 암살계획이 발각되어 주모자인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함으로써 겪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극도의 슬픔을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넷째, 스페인과의 대립은 결국 스페인의 무적함대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에 영국군을 선두에서

<표 1>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영화상 캐릭터 비교 분석

	명성황후 (1851~1895)	엘리자베스 여왕1세 ( 1533~ 1603 )		유추한 공통적인 캐릭터
시대적 배경	조선왕조 말기 9세(1860)에 간택	르네상스 시대 25세(1588)에 즉위		*두 주인공의 영화상의 캐릭터를 분석한 결과: 다섯 이미지로 유추
극중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정치 참여</li> <li>· 한 남자와의 심리적 교감</li> <li>· 정치적 대립에 따른 슬픔</li> <li>· 반대파와 맞서는 강인함</li> <li>· 국모로서의 당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인 카리스마</li> <li>· 한 남자와의 심리적 교감</li> <li>· 정치적 대립에 따른 슬픔</li> <li>· 남성보다 뛰어난 강인함</li> <li>· 국왕으로서의 당당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li> <li>·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li> <li>·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이미지</li> <li>·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한 이미지</li> <li>·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이미지</li> </ul>
그 시대의 대표적인 복식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1세	
				
	명성황후의 황원삼 <sup>17)</sup> - 인물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 옷, p. 108.	덕혜옹주의 당의 <sup>18)</sup> - 옷과 그들, p. 195.	Elizabeth I의 로브 <sup>19)</sup> - <a href="http://www.marileeco.com">http://www.marileeco.com</a>	헨리 8세의 더블릿 <sup>20)</sup> - 서양패션의 멀티 콘텐츠즈, p. 204.

지휘한 엘리자베스 여왕1세를 카리스마 있는 군주의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전쟁에 나선 여왕은 두려워하는 영국군에게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공표하며 선봉에 선다. 이에 영국군은 여왕의 남성보다 뛰어난 용맹함에 강적 스페인을 무찌르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남성보다 더 강한 군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

다섯째, 메리 스튜어트에 의한 암살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왕 앞에 나타난 암살자를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두 팔을 벌려 그를 수용하고 용서해 줄 듯 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국왕으로서의 당당함이 캐릭터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영화상에 두 여주인공의 캐릭터화한 것을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캐릭터를 유추할 수 있었다<표 1>.

### Ⅲ. 영화에 표현된 여주인공의 의상 비교분석

#### 1. 명성황후의 의상분석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심현섭 의상 감독은 기존 드라마와 뮤지컬 등을 통해 이미 선보였던 조선의 의상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동방소국 백의민족의 자

연주의를 토대로 인공 미학과 과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한국적인 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의상들을 수작업으로 제작하였고, 특히 자색과 천연 염색에 의한 차분한 색감으로 옷의 깊이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청명한 푸른빛과 분홍빛은 그녀의 소녀다움을 부각시켰고, 자색과 녹색은 국모로서의 자애로움을, 그리고 때로는 붉은 색으로 강인함을 강조한 의상들을 제작하였고 엔딩 장면에서의 의상에서는 백의민족을 대표하는 소재를 이용하여 국모로서의 위엄과 슬픔을 표현하였다.<sup>21)</sup> 그 외에도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된 서양드레스 제작을 통해 놀라움과 함께 시각적인 즐거움 연출 등 화려한 명성황후의 동서양 복식을 재현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사랑에 아름다운 색감을 더하기도 하였다.

영화상 등장한 명성황후의 의상은 총 17벌이며, 극중 선별된 5벌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1><sup>22)</sup>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홍색 고름, 자색 깃과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가 달린 녹당의와 자색의 대란치마, 용비녀와 첩지를 착용하고 있다. 당의에는 양 어깨와 앞가슴에 금사의 용무늬 보가 달려있다.

형태는 고중에 의한 구성이고, 고중에 의하면 녹당의에 홍색치마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한 카리스마 이미지 연출을 위해 자색 대란치마를 착용시킨 것이 특이하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서는 복식의 색상으로 자색을 많은 부분

<표 2> 극 중 명성황후의 의상

				
<그림 1> 카리스마 이미지	<그림 2> 이중적 내면의 갈등 이미지	<그림 3> 슬픔이 표출된 이미지	<그림 4> 강인한 이미지	<그림 5> 국모로서의 당당한 이미지

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극적 이미지 표현을 위한 재해석이라 사려된다. 이는 서양 고대시대부터 자색(보라색)에는 황제, 왕권, 왕실, 존귀함 등의 권력의 색<sup>23)</sup>의 상징적 의미를 차용한 듯하다. 이와 더불어 왕권의 상징인 용무늬 보를 양어깨와 앞가슴에 장식하였고 양 팔에는 명예, 군자의 상징적인 꽃<sup>24)</sup>인 연꽃 문양의 금박을 장식하였다. 비녀 역시 용모양으로 왕권을 상징하였다. 이와 같이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강한 명성황후 카리스마를 표현하였다고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대원군과의 대립 속에서도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사려되며, 이를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강한 카리스마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sup>25)</sup>의 의상을 분석해 보면, 장포와 대란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자색 깃과 거들지가 달린 청색 장포에 자색 대란치마, 보라색 비녀를 착용하고 있다.

장포의 형태를 살펴보면 깃의 형태는 두루마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길의 형태는 원삼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두루마기와 원삼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제작한 것이라 사려되며, 장포에 사용된 청색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상징체계에서 여성적인 색<sup>26)</sup>이었다. 이러한 청색을 사용하고 문양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극 중 명성황후의 심리를 표출하기 위함이라 사려된다. 또한 포 형식에 궁중 여자 복식인 대란치마를 함께 착용한 것은 형식상 부적합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명성황후의 여성으로서의 심리와 황후로서 이중적인 갈등심리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과장된 장식품을 배제하고 연한 자색의 비녀로만 장식함으로써 왕비로서의 이미지 외에 가녀린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가하였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민자영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여인으로서의 마음과 정치적인 분쟁 속의 왕비로서 명성황후의 위치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sup>27)</sup>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자색계열의 저

고리에 홍색 고름과 자색 깃,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이 달려있으며, 자색 대란치마를 착용하였다.

형태는 조선 후기의 가슴까지 올라오는 짧은 저고리와 대란치마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상의 의상에서는 연 보라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색계열의 색을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극에 달하는 슬픔을 표출하기 위한 재해석이라고 사려된다. 여기에서의 자색은 <그림 1>에서 사용된 자색(보라색)의 상징적 의미와는 달리 죽음과 연약함, 우울, 공포 등의 정서와 연관된 슬픔의 색<sup>28)</sup>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명성황후의 슬픈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듯하다. 또한 황후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 어떠한 장식도 배제하고 단지 꽃모양의 수 장식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황후로서의 모습보다는 어머니를 잃은 슬픈 딸의 모습을 부각시켰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명성황후의 모습이 아닌 어머니를 잃은 딸의 극도의 슬픔을 지닌 심리상태를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슬픔의 표출된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sup>29)</sup>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대례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는 정치적 대립 세력에게 황후로서의 근엄한 위엄을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사려된다.

형태는 원삼의 형식으로, 색상은 흰색 길에 홍색 대와 홍색의 색동으로 구성되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왕비의 원삼은 고종황제시대에는 황원삼을 착용하였으므로 극중 의상에서는 흰색 바탕에 금사로 전체를 수놓은 방식으로 황원삼을 표현하였다. 원삼의 형태를 재현하였지만 치마·끝동·대·족두리(어염족두리)에 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한삼에는 더욱 화려한 금사 장식을 하였다. 화려한 금사와 이와 대조적인 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화려한 장식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원삼의 색동으로 홍색을 사용한 것은 태양과 모든 전쟁의 신을 나타내며 왕의 위엄<sup>30)</sup>이란 상징적 의미를 내포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흰 원삼에 전체적으로 금사로 수를 놓은 것은 황색의 높고 귀함의 상징과 경고의 상징<sup>31)</sup>을 표출시키기 위함이며, 어여머리 장식으로 왕비의 권위를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대립 세력에게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응대하려는 명성황후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심리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슬픈 마음이 크지만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일들을 꾸민 반대 세력에 대해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며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명성황후의 모습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강인한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sup>32)</sup>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대례복을 착용한 모습이다. 형태는 원삼 형식이며 소재 바탕에 금사로 장식하였고 전체적인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하였다. 대와 끝동에도 색을 넣지 않고 소재에 금사로만 장식을 하였으며 머리장식도 최소화 하였다. 앞서 본 전기점화식의 홍색으로 포인트를 준 원삼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재에 금사로만 장식을 하였다. 머리장식은 어머머리 장식을 하지 않고 비녀와 첩지만으로 장식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나타내며 그 와중에도 용비녀를 착용하여 왕비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여기에서의 금사 장식인 황색은 높고 귀함을 상징<sup>33)</sup>하는 것으로 소재 바탕인 원삼에서 명성황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화려한 금사 장식과 흉배를 통해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명성황후의 국모로서의 모습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일본에 의해 시

해를 당하지만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죽은 이 후에도 조선의 국모로서의 위엄을 당당하게 지키려한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결과, 명성황후의 국모로서의 당당한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분석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의상감독인 알렉산드라 번(Alexandra Byrne, 영국)은 16세기 후반 영국 여성 복식을 그대로 고증하기보다는 당시의 인위적이고 웅장한 팽대복장에 모더니즘을 접목시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여왕 복식으로 제작하였다. 즉, 코르셋과 파팅게일에 의한 지나친 축소와 과장을 피하고 형태적인 면에서 현대의 모더니즘을 반영하여 당시 복식의 과장된 볼륨감을 축소시켰으며, 디테일 장식에 있어 특정 부분을 포인트로 장식함으로써 당시 복식의 화려함과 동시에 현대의 절제미가 표출되었다. 정교한 자수와 금 레이스, 보석이 달린 벨벳 스토타커가 달린 가운과 다이아몬드와 루비, 진주 등 다채로운 보석으로 꾸민 장신구 등은 복식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강력한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sup>34)</sup> 결론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복식은 시대적 고증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의식을 함축시켜 재해석된 것이다.

영화상 등장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 총 24

〈표 3〉극 중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

				
〈그림 6〉 카리스마 이미지	〈그림 7〉 이중적 내면의 갈등 이미지	〈그림 8〉 절제된 슬픈 이미지	〈그림 9〉 강인한 이미지	〈그림 10〉 당당한 이미지

별이며, 극 중 선별된 5벌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림 6〉<sup>35)</sup>의 의상을 분석해보면, 형태는 붉은 색의 로브 형식이며, 같은 색상의 모티브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기에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와 깃털로 된 V자형 머리 장식과 심플한 금장식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왕과 귀족들은 복식의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레 바퀴형 러프 칼라는 얼굴 주위에 부피를 형성함으로써 정신적인 고귀함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러프칼라를 착용하면 고개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권층을 상징하는 권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의 폭이 확장된 원뿔형 실루엣 스커트는 실루엣을 극도로 과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여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 색상의 V자형 머리장식은 군인들의 투구에 장식되어 높은 지위와 자긍심을 상징하는 깃털 장식을 차용한 것으로, 여왕의 권위를 더욱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의 복식은 스토타커 부분에 화려한 장식을 하였지만, 극 중 의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색상의 벨벳 모티브와 보석의 장식을 통해 우아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려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절대왕정시대의 군왕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군왕으로서의 위엄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강력한 카리스마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sup>36)</sup>의 의상을 분석해 보면, 은회색 로브에 슬래쉬 장식이 있는 소매가 달려있다. 그러나 고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에블렛과 슬래쉬는 그 시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화려한 장식의 목적으로 자수, 보석 등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극 중 의상의 에블렛과 슬래쉬의 장식은 지나치지 않게 절제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

왕으로서의 지위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더불어 은회색과 처녀여왕의 신성과 정절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금색 장식품들을 착용한 것은 여왕으로서의 자신의 운명은 물론 여왕의 지위를 수용해야만 하는 내적 갈등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윌터 라일리에게 기대어 그와 함께 떠나고 싶은 마음과 한 남자의 여자로서만 살아갈 수 없는 국왕이라는 운명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적심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이중적 내면의 갈등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sup>37)</sup>의 의상을 분석해 보면, 푸른색 로브에 보디스와 같은 직물로 만든 파플렛(partlet)을 이용한 하이네크라인이 달려있으며, 하이네크라인 위로는 안쪽에 검은색 러프 칼라가 드러나 마치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을 묘사한 듯하다. 양다리 모양의 소매는 기존보다 조금 축소된 듯하고 소매 끝에는 검정 망사 장식이 달려 있으며 어깨부분에 검은색의 에블렛이 달려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는 처녀왕으로서 군중들에게 왕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한 의상을 선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극 중에서는 모든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극 중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슬픈 심리를 표현한 것이라 사려된다. 죽음과 심리학적으로 연약함이나 우울, 공포 등의 정서<sup>38)</sup>를 의미하는 보라색과 죽음의 어둠, 절망, 슬픔, 비애, 자기비하 등과 망사에 대한 애도<sup>39)</sup>의 의미가 함축된 검정색을 이용하여 여왕의 슬픔을 극대화 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사촌인 메리 여왕의 암살 시도 실패로 인해 참수형을 명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며, 이 또한 스페인의 계약인 것을 알고 더 더욱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다는 여왕으로서의 현 상황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절제된 슬픈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sup>40)</sup>의 의상을 분석해 보면, 르네상스 시대

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원피스 형태인 로브를 입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왕에게 대표적인 남자 상의인 더블릿(doublet)<sup>41)</sup>을 착용시킨 것은 더블릿이 남성의 힘을 상징하므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여왕의 남성적인 강인함을 묘사하기 위함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메탈 장식이 있는 로브 위에 착용한 회적색 재킷은 소매 끝에 쇠 구슬 장식을 하고 앞을 오픈하였다. 안에 입은 로브에 갑옷을 형상화 한 메탈 소재의 스토마커와 작은 러프 칼라를 부착하였으며 은회색 스커트와 매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색상을 어둡게 하고 모든 장식을 메탈로 하여 전시임을 표현한 것으로 사려된다. 여기에 지나친 장식을 피하고 스토마커와 칼라는 갑옷을 형상화하여 제작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의상은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나 해전을 하게 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모습으로 전시에 영국군의 두려움을 덜어주며 그들의 선봉에 서서 스페인에 대항할 준비가 되었음을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강인한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0〉<sup>42)</sup>의 의상을 분석해 보면, 끝에 레이스 장식이 있는 양다리 모양의 소매가 달린 흰색 로브를 착용하고 있다. 어깨에는 주름 잡힌 레이스의 에블렛이 달려있고, 금색 진주 목걸이와 여왕의 상징과 같은 스쿼어 금반지를 끼고 있다. 로브와 베일의 전체적인 색상을 흰색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흰색을 살펴보면 신성하고 고결한 이미지의 높은 위상을 상징<sup>43)</sup>하며 더불어 부활을 상징<sup>44)</sup>하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흰색의 로브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국왕으로서의 위상과 암살로도 막을 수 없는 영국 국왕으로서의 위대함을 표현해준 것이라 사려 된다. 전체적인 레이스 장식, 부드러운 느낌의 메디치 칼라와 흰색 베일을 매치하여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비록 암살자이긴 하나 영국국민이므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여왕의 의도가 표출된 것이라고 사려 된다. 여기에 스토마커의 보석 장식과 금색 액세서리 등의 화려한 장식을 통해 여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복식은 죽음을 감지하고도 암살자까지도 영국국민이므로 감싸 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여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려는 심리를 표현해준 것이라는 분석결과,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군주로서의 당당한 캐릭터를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두 주인공의 의상 비교 분석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의 의상과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을 다섯 이미지로 비교·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는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녹당의와 자색 대란치마로 구성된 명성황후의 의상은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남성적인 강인함과 개방성은 물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국모로서의 자애로운 이미지 등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미지가 표출되었다. 러프칼라와 보석 장식이 달린 붉은색의 로브와 V자형 깃털 머리장식으로 구성된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색상과 군인의 투구장식의 차용, 재해석을 통해 군왕으로서의 강력한 위엄이 표현된 정치적인 남성성은 물론 여성적인 외교술도 표현된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미지가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두 주인공 의상에서의 공통점은 그 시대 의상의 고증을 바탕으로 정치적 분위기에서의 카리스마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색상의 상징적 의미와 장식을 재해석하여 표출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여성적인 색인 청색 계열의 사용과 화려한 장식을 추구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절제된 장식 등의 재해석을 통해 여인으로의 삶과 왕비 또는 여왕으로서의 운명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내면의 상태가 유사하게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극도의 슬픔에 빠진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왕비이기에 앞서 어머니를 잃은 딸로서의 슬픔이 표출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슬픈 상황

<표 4> 명성황후와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 비교

복식 이미지	명성황후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복식 이미지		
	재현	복식분석		영화 장면	영화 장면	복식분석			
		재해석	영화 장면			재현		재해석	
카리스마적인 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의, 대란 치마의 구성</li> <li>•용무늬 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란 치마의 자색계열색상 (권력의 상징색)</li> </ul>	 <p>대원군과의 연회에 참여한 황후</p>	 <p>관료 회의를 주관하는 여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레바형 러프 칼라</li> <li>•로브의 형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V자형 머리장식 (높은 지위, 자긍심을 상징)</li> </ul>	↔↔	카리스마적인 복식
갈등적 심리 표현의 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란치마</li> </ul>	<p>&lt;장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 (두루마기+원삼)</li> <li>•색상(청색: 여성색)+최소한의 장식=이중적인 갈등심리</li> </ul>	 <p>무명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황후</p>	 <p>윌터 라일리를 남게 한 여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브(슬래쉬, 에블렛 장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회색과 푸른색의 색상+최소한의 장식=이중적 내면의 갈등</li> </ul>	↔↔	갈등적 심리 표현의 복식
슬픈 이미지의 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고리와 대란 치마의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색계열인 연보라, 짙은 보라색 (슬픔의 색)</li> </ul>	 <p>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오열하는 황후</p>	 <p>메리 여왕 참수 후 괴로워하는 여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라색 (정서의 의미)+검정색 (애도의 의미)</li> </ul>	↔↔	슬픈 이미지의 복식
강인한 이미지의 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례복, 어여머리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흰색, 황색, 홍색(강인함, 높고 귀함을 상징)</li> </ul>	 <p>전기 점화식 행사에 참여한 황후</p>	 <p>스페인전에 참전한 여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마커/스커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탈소재 갑옷의 형상화</li> <li>•더블릿의 차용(남성적인 강인함)</li> </ul>	↔↔	강인한 이미지의 복식
당당한 이미지의 복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례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색(흉례)과 황색(높고 귀함)→죽음을 암시</li> <li>•비녀, 첩지→최소한의 권위</li> </ul>	 <p>을미사변 당시 시해되는 황후</p>	 <p>암살 시도 당시의 여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흰색(신성, 순결한 이미지, 부활 상징)</li> <li>•메디치칼라(평온한 분위기)</li> </ul>	↔↔	당당한 이미지의 복식

속에서도 군왕으로서의 위치에 의해 절제된 슬픔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 두 의상에서는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바탕으로 표현기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슬픔의 색인 자색 혹은 보라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출시켰다는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추고 전기 점화식에 나가 반대 세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례복에 붉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대립세력에게 황후로서의 근엄한 위엄을 강조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스페인과의 전시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남성복인 더블릿을 차용하여 재해석한 남성적인 강인함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비록 두 주인공의 상황적 배경에 차이가 있지만, 두 주인공의 의상 각각에는 적에 대항하려는 강인함이 유사하게 내포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강인함의 이미지가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한 결과, 시해와 암살이라는 상황 하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적 지위가 조선의 국모와 영국의 국왕이기에 죽음 앞에서 위엄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당당함을 소재와 흰색의 상징적 의미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두 주인공의 극 중 의상에는 당당함의 이미지가 표출되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여주인공의 의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복식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표 4).

이상과 같이 “불꽃처럼 나비처럼”의 명성황후의 의상을 살펴본 결과, 그 시대의상의 고증을 바탕으로 극 중 상황의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색상, 장식 등이 재해석되어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Elizabeth: The Golden Age”의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도 고증을 바탕으로 국왕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권위의 상징을 중시하여 대부분의 의상은 부피를 확대하고 화려한 장식을 통해 과시적 지위가 묘사되었지만 극중 상황에 따라 이미지

를 표출하기 위해 과도한 장식들이 배제되고 의상의 부피를 축소하여 각 상황의 이미지에 효과적인 묘사를 위해 색상 선택 및 디테일적인 부분이 재해석되었음을 유추하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과 ‘Elizabeth: The Golden Age’ 줄거리와 극중 인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극의 스토리 전개 상 두 주인공의 공통적인 캐릭터가 표출된 장면들에서 유추된 다섯 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여 영화의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표출시킨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여성성과 개방성을 함축시켜 왕비로서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 표출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남성성과 위엄을 함축시켜 군왕으로서의 정치하는 상황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 두 주인공이 왕비와 여왕이라는 지위 차이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주인공의 의상에는 그 시대 의상의 고증을 바탕으로 정치적 분위기에서의 카리스마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색상의 상징적 의미와 장식이 재해석되었음을 유추하였다.

둘째,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내면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인으로의 삶과 왕비 또는 여왕으로서의 운명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내면의 상태를 여성적인 색인 청색 계열의 사용과 화려한 장식을 추구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절제된 장식 등으로 유사하게 재해석되었음을 유추하였다.

셋째,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왕비의 위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잃은 딸로서의 슬픔이 표출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슬픈 상황 속에서도 군왕으로서의 지위에 의해 절제된 슬픔이 두 의상 모두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바탕으로 표현기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슬픔의 색인 자색 혹은 보라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

출시켰다는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넷째,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성황후의 의상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추고 전기 점화식에 나가 반대 세력에 대응하는 당당한 모습이 표현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스페인과의 전시에 대항하는 당당함이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공은 상황적 차이가 있지만, 두 주인공의 의상은 그 시대의 의상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례복에 붉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대립세력에게 황후로서의 근엄한 위엄을 강조된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의상은 스페인과의 전시에 대항하려는 남성적인 강인함을 표현하기 위해 남성복인 더블릿을 차용하여 재해석한 것으로 보아 표현기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적에 대응하기 위한 강인함이란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에서의 두 주인공의 의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혜와 암살이라는 상황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적 지위인 조선의 국모와 영국의 국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소재와 흰색의 상징적 의미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미지
사랑받는 여인으로 살고가고 싶은 내면 이미지
정치적 갈등에서 온 극도의 슬픔 이미지
반대 세력에 맞선 강인함 이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 이미지



카리스마적인 복식
갈등적 심리 표현의 복식
슬픈 이미지의 복식
강인한 이미지의 복식
당당한 이미지의 복식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영화라 하더라도 유사한 극적인 상황에 따라 표출된 영화의상의 상징적 이미지가 유사함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시대의 의상 고증을 바탕으로 영화 속 픽션에 적합한 영화의상으로 재해석하여 극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시켰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의상에 극중 스토리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및 상징적 의미를 함축시킨다면 대중들에게 극적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영화의상은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극적인 상황에서의 의상 재해석 방법을 영화의상 제작자에게 효과적으로 제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영화의 극적인 분위기의 표현은 물론 이에 따른 상징적 의미도 의상에 함축시켜야 함을 제안하고 앞으로 영화산업의 발달에 따라 영화의상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의상이 예술의 한 장르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순영 (2005), *영화로 보는 복식사*, 서울: 경춘사, p. 1.
- 2) 장성은 (2009), '007' 시리즈 영화의상의 시대별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복식*, 59(1), p. 107.
- 3) 김성곤 (1997), 영화예술의 미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 4) 김혜진 (2001), 영화의상이 패션에 끼친 영향 -1920년대~1960년대 할리우드 영화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9.
- 5) 한양대 연극영화과 편 (2000), *영화예술의 이해*, 서울: 한양대 출판부, p. 14.
- 6) 이혜주, 전인미 (2009), 영화에 나타난 악인 캐릭터의 시각적 이미지 분석-2000년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복식*, 59(1), p. 4.
- 7) 김미영 (1999), 영화 '세익스피어 인 리브'에 나타난 복식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8) 황왕수 (1999), *Marcel Martin. Le Langage Cinematographique*, 영상언어: 다보문화, p. 78.
- 9) 김지연 (2009), 한국영상매체에 나타난 의상고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 10) 조수현 (2010), 現代史劇에 나타난 明成皇后 服飾에 관한 研究 -드라마'명성황후', 영화'불꽃처럼 나비처럼', 뮤지컬'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p. 42.
- 11) 권현진 (1994), 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Amadeus 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 12) 조윤영, 양숙희 (2003), 영화의상에 나타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로브의 표현효과, *복식*, 53(3), p. 90.
  - 13) ‘불꽃처럼 나비처럼’, 자료검색일 2010. 9. 7,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7865>
  - 14) ‘불꽃처럼 나비처럼’, 자료검색일 2010. 9. 7,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7865>
  - 15) ‘Elizabeth : The Golden Age’, 자료검색일 2010. 10. 7, [http://www.cine21.com/Movies/Mov\\_\\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http://www.cine21.com/Movies/Mov_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
  - 16) ‘Elizabeth : The Golden Age’, 자료검색일 2010. 10. 7, [http://www.cine21.com/Movies/Mov\\_\\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http://www.cine21.com/Movies/Mov__Movie/movie_detail.php?s=base&id=21415)
  - 17) 권오창 (1998), *인물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서울: 현암사, p. 108.  
명성황후가 착용한 황원삼(1997년 제작,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 18)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서울: 삼신각, p. 194.  
덕혜옹주 당의 (명성황후가 당의를 착용한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비슷한 시기의 덕혜 옹주의 당의 착용 사진을 첨부함)
  - 19) Elizabeth I : The Peace Portrait, 1580-5, 자료검색일 2010. 9. 19, <http://www.marileecody.com>
  - 20) 김민자의 (2010), *서양패션 컬러 콘텐츠*, 서울: 교문사, p. 204.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착용한 더블릿
  - 21) ‘불꽃처럼 나비처럼’, 자료검색일 2011. 8. 16, <http://www.newshankuk.com>
  - 22) 녹당의와 보라색 대란치마  
싸이더스 FNH (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 23) 전영심 (2008), 보라색의 상징성 연구 -서양 복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7.
  - 24) 정혜린 (2006), 조선시대 여자복식에 나타난 꽃문양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25) 청색 장포와 보라색 대란치마  
싸이더스 FNH (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 26) 김혜원 (2008), 색의 상징성과 우리말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27) 연보라색 저고리와 보라색 대란치마  
싸이더스 FNH (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 28) 김혜원, *op. cit.*, p. 54.
  - 29) 흰원삼과 홍색치마  
싸이더스 FNH (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 30) 김혜원, *op. cit.*, p. 11.
  - 31) *Ibid.*, pp. 17-18.
  - 32) 소색 원삼과 금사 장식  
싸이더스 FNH (2009),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 DVD.
  - 33) 김혜원, *op. cit.*, p. 17.
  - 34) 권혜수 (2008), 영화 <Elizabeth: The Golden Age> (2007)의 복식과 색채 상징성 -Queen Elizabeth의 복식을 중심으로-, *패션 비즈니스*, 12(5), pp. 131-132.
  - 35) 수레바퀴형 러프 칼라, V자형 머리장식  
Tim Bevan, Eric Fellner, Jonathan Cavendish (2007), Elizabeth: The Golden Age, DVD.
  - 36) 은회색 로브  
Tim Bevan, Eric Fellner, Jonathan Cavendish (2007), Elizabeth: The Golden Age, DVD.
  - 37) 배제된 장식  
Tim Bevan, Eric Fellner, Jonathan Cavendish (2007), Elizabeth: The Golden Age, DVD.
  - 38) 전영심, *op. cit.*, p. 54.
  - 39) 김혜원, *op. cit.*, p. 15.
  - 40) 메탈장식의 로브  
Tim Bevan, Eric Fellner, Jonathan Cavendish (2007), Elizabeth: The Golden Age, DVD.
  - 41) 김민자의, *op. cit.*, 서울: 교문사, p. 208.  
14세기부터 착용된 더블릿은 갑옷 아래에 착용하던 옷에서 변형된 형태로,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갑옷에 몸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솜을 넣어 누비면서도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몸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져 입체적인 구성법의 재킷 형태로 발전한 옷이다. 앞트임은 단추, 후크나 끈으로 여뒀다.
  - 42) 흰색 로브  
Tim Bevan, Eric Fellner, Jonathan Cavendish (2007), Elizabeth: The Golden Age (2007), DVD.
  - 43) 박성주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백색 연구 -2000년-2004년의 해외 여성 기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 44) *Ibid.*, p. 21.